

◎ 경제 발전을 위해 자연을 어디까지 개발하는 것이 좋을지 써 봅시다.

학년

반, 이름



지나친 관광 편의 시설, 중국 곳곳 훼손

중국에는 관광 편의 시설을 지나치게 개발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곳이 많다.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로 유명한 후난성과 장자제(장가계)는 엘리베이터가 완공된 뒤 몰려오는 관광객으로 신음하고 있다.

중국 3대 명산 중의 하나인 황산, 후베이성 은스 협곡도 마찬가지이다. 이곳에 케이블카, 엘리베이터,

세계 최장 에스컬레이터 등 각종 편의 시설이 설치되었다.

중국 정부와 관광 기업은 이러한 편의 시설로 인해 많은 관광 수익을 얻고 있다며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들은 대자연의 풍경을 기대하고 갔다가 수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사람 뒤통수 구경만 하고 왔다고 불만을 늘어놓았다.

수천 년 역사 유적과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곳곳에 간직하는 중국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물론 편의 시설 설치로 인해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대자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지나친 인공적인 개발은 자연과 역사가 주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때로는 자연 경관을 파괴하기까지 한다.

과연 자연은 어디까지 개발하는 것이 좋을까?



Q 중국의 3대 명산에 관광객들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Q 관광객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적인 개발을 계속해서 한다면 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 만약 나라면 관광객을 위해 개발을 할 건가요? 아니면 자연을 위해 개발을 하지 않을 건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자연도 위하고 개발도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